

보도 일시	2022. 3. 3.(목) (배포 후 즉시)	배포 일시	2022. 3. 3.(목)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송용권 (044-201-6560)
		담당자	사무관 이시윤 (044-201-6561)

제5차 유엔환경총회 폐막,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 마련 등 논의 - 환경부 장관 한국의 순환경제 노력 공유 및 국제사회와 연대 강화 강조 -

- 정부는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제5차 유엔환경총회(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5.2)가 3월 2일 오후 6시경(케냐 현지시각 기준, 한국시각 3월 2일 자정)에 폐막했다고 밝혔다.
- 유엔환경총회는 유엔회원국 전체가 참가하여 유엔환경계획(UNEP)의 사업계획뿐만 아니라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환경 회의로, 제5차 총회는 코로나로 인해 1·2부로 나뉘어 개최*됐다.
 - * 코로나로 인해 '21년에 비대면총회('21.2.22-23, 예산 등 행정사항 결정)와 대면총회('22.2.28-3.4, 결의안·장관선언문 채택 및 UNEP 50주년 기념)로 분리 개최를 결정
- 지난해에 이어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DGs)'을 주제로 개최된 이번 총회에는 163개 회원국의 정부대표단과 국제기구, 이해관계자 등 2,000여 명이 대면 및 비대면(온라인)으로 참여했다.
- 우리나라에서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비대면으로 참여했으며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소개했다. 특히 국제 현안으로 부상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합의 도출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 이번 총회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다루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공식적으로 논의한 첫 국제회의로, 회원국들은 결의안*을 통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결의안 명칭 :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 그동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국제사회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유엔환경총회 차원에서 다수의 결의안을 도출한 바 있으나, 이번 합의는 ‘해양’에 한정되지 않고 플라스틱의 전주기적(full lifecycle)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구속력 있는 협약을 제정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그 외에도 자연기반해법, 화학물질 및 폐기물 관리 등 주요 환경 의제를 다루는 14개의 결의안과 의장국(노르웨이) 주도로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협력 강화의 의지를 담은 장관선언문이 채택됐다.

□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을 소개하고, 유엔 차원의 전지구적 환경논의에 기여했다.

○ 총회에 앞서 2월 11일에 개최된 프랑스 주최 해양환경 정상회의(One Ocean Summit)에 화상 참석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경이 없는 바다의 플라스틱 오염을 막기 위해서는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바 있다.

○ 이번 총회의 우리측 수석대표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국가발언 및 각료급 리더십대화를 통해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야심찬 행동과 연대를 촉구함과 동시에,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마련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 나아가, 한정에 장관은 유엔환경총회의 사전지역회의인 제4차 아태 환경장관포럼의 의장으로서 지난해 10월에 열린 이 포럼이 플라스틱 오염 대응,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등 지역내 환경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역내 환경협력 강화의 의지를 다지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소개했다.
 - 이번 총회에 참여한 각국 대표와 국제기구, 이해관계자들은 플라스틱 오염대응 국제협약의 적용범위, 주요요소, 향후절차 등에 있어 첨예한 입장 대립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결의안에 합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총회가 전지구적 플라스틱 문제 대응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데 공감했다.
 - 회원국들이 2024년 성안 완료를 목표로 연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구성하여 협상을 개시하기로 한 만큼, 국제사회에서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 한정에 장관은 “순환경제 촉진, 온실가스 감축과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을 포함하는 국가 행동계획 마련 등 주요 사항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이 담길 수 있도록 정부간 협상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총회에 이어 유엔환경계획 설립 50주년을 맞아 3월 3일부터 이틀간 유엔환경계획 50주년 특별세션이 진행될 예정이다.
 - 한정에 장관은 국가발언을 통해 우선 50년 동안 정책입안자들에게 견고한 과학적 기반을 제공해 온 유엔환경계획의 노력과 성과에 감사를 표명하고, 유엔환경계획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녹색경제 이행 파트너십(PAGE, Partnership for Action on Green Economy)* 사업과 같은 유엔 기구 간의 협력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할 계획이다.
- * ‘13년부터 ‘30년까지 30개 개도국의 녹색경제 이행지원을 목표로 UNEP, UNDP 등 5개 UN 기구와 우리나라 포함 8개 공여국의 참여 아래 진행

붙임 1.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 개요

2.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결의안 주요 내용. 끝.

담당 부서 <총괄>	환경부 국제협력과	책임자	과 장 송용권 (044-201-6560)
		담당자	사무관 이시윤 (044-201-6561)
	외교부 녹색환경외교과	책임자	과 장 김기현 (02-2100-7794)
		담당자	사무관 하명선 (02-2100-7831)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책임자	과 장 신재영 (044-200-5300)
		담당자	사무관 장유경 (044-200-5303)

□ 회의 개요

- (회의명)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 및 유엔환경계획 50주년 특별세션 회의
(Resumed fifth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UNEA-5.2) and Special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UNEP@50))

※ 코로나로 인해 '21년에 온라인총회(’21.2, 예산 등 행정사항 결정)와 대면총회(’22.2.28-3.4, 결의안·장관선언문 채택 및 UNEP 50주년 기념)로 분리 개최를 결정

- (기간·장소) '22.2.28(월) ~ '22.3.4(금), 하이브리드(케냐 나이로비·온라인)

일 자	시 간	일 정	
2.28~3.2	10:00 ~ 18:00	제5차 유엔환경총회 2부 (UNEA-5.2)	개회식 및 국가발언
			국가발언 및 이해관계자대화
			각료급 리더십대화 및 폐회식
3.3~3.4	10:00 ~ 18:00	유엔환경계획 50주년 특별세션 (UNEP@50)	개회식 및 국가발언
			국가발언, 리더십대화 및 폐회식

※ 한국은 국가발언 2회(2.28~3.4, 영상) 및 총회 각료급 리더십대화에 온라인(3.2, 실시간) 참석

- (의제) 자연을 위한 행동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Strengthening Actions for Nature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 상세 프로그램(현지시간 기준)

	2.28(월)		3.1(화)		3.2(수)	3.3(목)	3.4(금)	
10:00 -11:30	UNEA-5.2 개회식 · CPR 결과보고 · 결의안 제안		전체 회의	국가 발언	각료급회의 개회식	UNEP@50 개회식	국가 발언	각료급 리더십 대화1
11:30 -13:00	국가발언				각료급 리더십대화			각료급 리더십 대화2
13:00 -15:00	부대행사		부대행사		부대행사	부대행사	부대행사	
15:00 -16:30	전체 회의	국가 발언	전체 회의	다자 환경협약 리더십 대화	UNEA-5.2 폐회식 · 장관선언문 및 결의안 채택 · 전체회의 결과보고서 채택	국가발언	국가 발언	이해관 계자 대화
16:30 -18:00				이해관 계자 대화			UNEP@50 폐회식	

* (결의안 명칭) End Plastic Pollution: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 해양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및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여, 플라스틱 전주기를 다루는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성안 촉구 및 이를 위해 '24년까지 협약 성안을 목표로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22년부터 구성

- '24년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약을 준비하고, 이를 위해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22년 하반기 내 출범
- 플라스틱의 전주기를 다루는 국제협약에는 구속적 및 자발적 요소가 포함됨을 인지하며, 리우 선언에서의 모든 원칙과 국가 상황 및 역량을 고려
- 국제협약을 성안하기 위한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고려할 요소로;
 - △협약의 목표 구체화, △상품 디자인, 폐기물 관리 등 순환경제 접근을 고려한 플라스틱의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방법 모색,
 - △해양환경에서의 플라스틱 오염 저감을 위한 국내·국제 협력 방안 탐색,
 - △플라스틱 오염을 예방·저감·제거하기 위한 국가 행동계획 촉진,
 - △모범사례 공유 △국가 및 국제 이행현황 모니터링 및 보고 메커니즘 마련,
 - △역량개발, 기술이전 및 재정지원 검토 △모든 이해관계자의 행동 촉구,
 - △연관된 과학적 정보 및 평가를 제공할 메커니즘 탐색 등을 제시
-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향후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는 기타 요소도 고려할 수 있음을 명시
- 정부간 협상위원회를 수립하기 위한 작업반 회의를 '22년 상반기 내 개최
- 유엔환경계획 사무총장에게 정부간 협상위원회의 협상 종료시 해당 협약의 채택 및 발효 절차를 진행할 것과, 협상위원회의 협상 결과를 제6차 유엔환경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